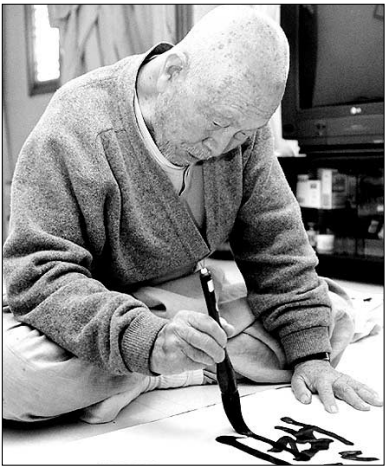


포교·역경에 온몸 바친 선지식

석주당 정일 대중사 행장



석주 스님은 불사에 꼭 필요하며 회호를 부탁하면 발을 새서라도 글씨를 모두 써 주곤 하신 정도로 포교에 열심이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현대 한국불교의 산 증인

석주(佛耆)당 정일(正一) 대중사는 1909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다. 23년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 33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스님은 이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사, 덕숭산 정해사, 묘향산 보현사 등에서 효봉·해산·해암 스님 등과 인거를 성립했다.

석주 스님은 46년 6월 경봉·용담·대의·석기 스님등과 함께 민족불교개혁을 위한 불교혁신연맹을 조직해 불교개혁에 앞장섰다. 53년 10월에는 효봉·동산·금호·정담·자은 스님등과 불교정화운동을 위한 촉구 결의를 선학원에서 했으며, 54년 5월 대의·종의·재열·정열 스님들과 불교정화운동을 발기하기도 했다.

스님은 58년 경주 불국사 주지, 60년 불교정화 사태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6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등을 거쳐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70년), 조계종 8대 총무원장(71년), 영전 은해사 주지(76년),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77년), 조계종 제15대 총무원장(78년), 중앙승가대학 초대학장(80년), 비상중단운영회의 부의장 겸 상임위원(83년), 조계종 23대 총무원장(84년), 중앙승가대학 명예학장(88년), 동국역경사업 진흥회 이사장(89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94년), 동국역경원 한글판만대장경 역경사업 후원회 회장(94년)을 역임하는 등 현대 한국불교의 '산 증인'이었다.

석주 스님은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지만 매년 임기가 끝나기 전 사표를 내는 등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행정을

잘 모르는 수행승일 뿐이며 나오다 더 나은 사람이 총무원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종정 후보로 여러번 추천되기도 했지만 "난 산중에 있지도 않고 다른 어른스님이 해야 한다"며 매번 사양하기도 했다.

"한글대장경 마쳐야 세상 하직하겠다"
"스님이 동국역경원 부원장직에 계셨을 때 10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안하고 출근했습니다. 스님 생신이라고 신도들이 보시한 돈을 전부 역경원 후원금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최철환 동국역경원 편집부장)

스님의 역경에 대한 원력은 남달랐다. 한글대장경이 완간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대장경을 마쳐야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스님의 원력 덕분이었다.

석주 스님은 사재를 털어 1961년 5월 현 동국역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했다. <열반경> <법화경> <유마경> <육조단경> <현유경> <선가귀감> 등을 번역 출판했고,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은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한 이후 운허 스님과 함께 한글대장경 편찬 작업에 착수, 37년만인 2002년 9월 318권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했다.

스님의 역경불사 원력은 주석하던 철보사 대웅전 현판을 손수 '큰법당'이라고 바꾼데에서 엿볼 수 있다.

수행자다음에서 한치 벗어남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생할 잘하는 것이냐고 여쭙면 '아침 예불에 빠지지 않는 것과 아침 공양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예불에 빠지는 것은 그 전날 늦게 잠에 들어오거나 딴 짓

을 한 것이고, 아침 공양에 불참하는 것은 그 전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딴 짓을 먹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연암 스님)

석주 스님은 아흔이 넘은 최근까지도 조석 예불을 철저히 하고, 예불 끝에는 으레 좌선 정진을 하거나 108점회를 꼭 했다. 이후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도랑을 쓸었다.

이러한 엄격함은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언젠가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1975년에서 1976년 사이 비구, 비구니 이부승 계단이 구성될 때 일입니다. 그 때 계단에서 석주 스님을 존중 아사리(禮節)로 모시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말씀을 드리자 뜻밖에 단호히 거절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중사를 할 수 없소. 전복을 넣고 풀인 죽을 먹은 적이 있는데 내 어찌 중사를 할 수 있겠소.' 언젠가 스님께서 제주도에 가신 적이 있는데 누가 전복죽을 끓여 공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그것도 자신도 모르고 계율을 지키지 못한 일로 중사의 권유를 물리지셨던 것입니다."

석주 스님은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지만, 수행자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수행에 공공해진다"며 식탐을 제일 무겁게 경계했었다.

일평생 '오유지족'의 삶 견지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시절 어느 마을에 당도했을 때 해가 저물어 그 마을에서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처 절을 찾아 하루 묵기를 청했는데, 주지가 객실이 없다고 거절해서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객실이 총무원장이라는 걸 알고는 그 주지가 찾아와서 참회를 하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서울

철보사 주지 선근 스님)

일평생 '오유지족(吾唯知足, 오직 만족함을 안다)'의 삶을 견지한 석주 스님. 스님은 종종 화상실에 들어가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화상실에서 속옷과 양말 빨래를 손수 했던 것이다.

또 석주 스님은 양말이나 속옷에 구멍이 나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불호령이 내렸다. 그리고 손수 구멍난 양말을 기웠다. 그렇게 해서 모은 옷이나 양말은 수해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내놓았다. 이 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중앙승가대학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게나 중앙승가대학 기숙사로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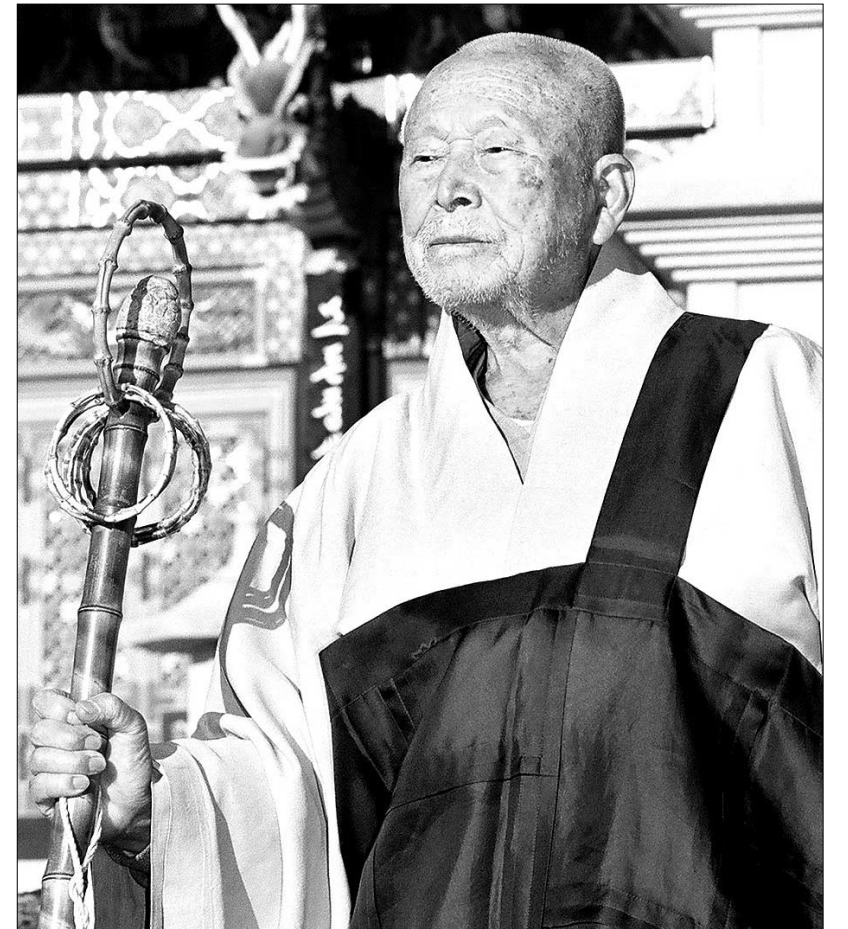
시대와 더불어 호호
석주 스님은 '산 속의 스승'만은 아니었다. 시대와 함께 숨쉬고 아파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11월 15일 '석주 스님 열반에 눈물흘리며'라는 글을 통해 "언젠가 만해 스님 후손이 있는 심우장에서 추모재를 올릴 때 조국을 위해 나누는 열사들의 정신을 우리 불교가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1980년 광주 민중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권이 마비됐을 때 조국의 민주화에 나서서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셨다"며 "당시 종교인으로 불교에서는 석주 스님이, 개신교의 문익환 목사,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더불어 사회 민주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스님의 이러한 생각은 노년에 접어들자 자연스럽게 노후복지 쪽으로 집중됐다. 아산보문사에 '안양원'을 설립, 어려운 노인들과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진력을 다했다.

원적에 들기 사흘 전 지은 계승발건
석주 스님은 평소 계승이나 회호를 손수



일평생 '오유지족'의 삶을 견지한 석주 스님. 스님은 구멍난 양말이나 속옷을 직접 기웠다. 그렇게 모은 속옷가지들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일생동안 검약과 보시의 삶을 견지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써주기를 좋아했다. 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뜻이었다. 또 불사하는데 필요하다며 계승이나 회호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 없이 밤을 새서라도 모두 써주었다.

스님이 원적에 들기 사흘 전인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주련을 쓰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지은 계승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96년의 세월 되돌아보니(禮願九十六年事)
마치 왕자가 구걸 다니는 듯 했네(一似懷珠備作擔)

오늘 아침 무거운 짐 내던지니(負今朝放下煩重)
옛 모습 오듯이 본 고향이구나(本地風光古如新)

"자비원력보살" (서운 스님) '천하를 사랑하는 이' (범룡 스님) '인과 밖이 여여하신 자비보살' (관음 스님) '살 자체가 바로 법문인 분' (도원 스님). 현대 한국 고승들이 석주 스님을 평한 것처럼,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부처님 열반경이 임종계이거늘 어찌 임종계를 남기겠는가. 사리도 수습하지 마라."

글=천미희·남동우 기자



스님은 평소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자화하는 데 있다"고 늘 얘기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유난히 아끼셨다. 철보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한 석주 스님.

어린이를 유난히 아끼셨던 '천진불'

대원행 보살이 회고하는 석주 스님

"어린이들을 워낙 아끼시는 분이셨어요. 아이들이 스님 방으로 찾아가면 과자나 초콜릿을 모아놓았다가 주시곤 하셨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철보사 어린이법회에서 석주 스님을 처음 만난 대원행 보살(50)은 40여 년 동안 가까이서 모셔온 스님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린이나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별했던 스님은 학생회 수련회에도 빠짐없이

함께 했다. 취침 시간이면 수련에 지쳐 잠이 든 학생들이 깰까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이불을 덮어주실 정도로 자상했다. 또한 스님은 남몰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곤 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만 조용히 불러 장학금을 건네곤 하셨다.

늘 어린이들을 아끼고 보살뎠던 스님 방엔 언제나 어린이들이 넘쳐났다. 스님을 시봉하

시던 노보살이 버릇없는 어린이들을 야단치면 스님은 "저 어린이들이 자라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이니 야단치지 말라"고 말씀했다.

평소 "한국불교의 장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자화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던 '천진불' 석주 스님.

대원행 보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법명을 직접 지어 주시고 과자를 챙겨주시던 스님이 원적에 드셨다는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천미희 기자

(재)선학원 중앙선리연구원 채용 공고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실인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21세기 도약을 이끌어 갈 인재(연구원)를 모집합니다.

■ 자격
불교학(한국불교사)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위증명서 1부

■ 전형방법
1) 1차 : 서류 전형
• 제출기간 : 11월 17일(수) ~ 12월 4일(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개별접수, 우편에 한함

우편접수 및 서류제출처
재단법인 선학원 총무과
110-240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40번지
☎ (02)734-9654~6

2) 2차 : 면접
■ 기타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6일까지 개별통보를 해 드립니다.
• 면접은 12월 15일 실시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개원법회를 시작으로 백일관음기도를 병행합니다

영축선원 불교강좌 모집안내

참선대학강좌

기초반 (6개월) 11월 29일 오전 10시 개강
[매주 월] - 초발심자경음, 기초교리, 금강경, 참선실수

중급반 (6개월) 11월 30일 오전 10시 개강
[매주 화] - 금강경, 육조단경, 참선 실수

* 수강료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1만원(수시입학가능)

BBS부산교통방송 (89.9MHz) 매일 오후 9:05 ~ 9:25까지 반산스님의 범화경 강의가 방송중입니다.

대승불교강좌

기초반 12월 1일 오후 7시 00분 개강
[매주 수] - 기초교리,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중급반 12월 2일 오후 7시 00분 개강
[매주 목] - 부처님 일대기, 기초교리, 금강경, 법화경

* 수강료 : 입회비 1만원, 월회비 1만원(수시입학가능)

11월 23일(화) 11시 봉불식 및 개원법회를 병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포교원 靈鷲禪院 (영축선원) 원장 서봉 반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9동 469-15 대동레미안 B/D 401호 / TEL. 051)752-0108